

가족의 구조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지위가 부모의 양육과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검증*

윤 우 석**

논 | 문 | 조 | 록

이 연구의 목적은 가족의 구조적특성과 사회경제적 지위가 부모의 자녀양육행위와 청소년비행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포괄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 연구의 수행을 위해 청소년패널데이터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2학년 5년차 자료를 통합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가족의 구조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지위는 부모양육행위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편부가정의 자녀들은 부모양육행위에서 편모가정에 비하여 불이익을 당하고 있었다. 하지만 청소년비행에서는 편모가정의 자녀들 보다 더 문제행동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부모양육행위와 청소년비행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가정의 자녀들이 비행을 많이 저지르고 부모로부터 부적절한 양육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순위는 부모양육행위에 일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나 비행과는 관련성이 없었다. 조부모와의 동거여부는 부모감독을 약화시키나 중비행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성별에 따라서도 부모양육행위의 차이가 존재하며 이는 청소년비행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 주제어 : 가정의 구조적인 특성, 사회경제적 지위, 청소년비행, 부모양육행위, 출생순위

I. 문제의 제기

청소년비행의 원인으로 소개되는 많은 요인들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인은 가정(Family)이다. 여러 범죄학 이론에서도 가정은 청소년비행 및 범죄에 중요

* 본 연구는 2010년도 계명대학교 비사(신진)연구기금으로 이루어졌음.

**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전임강사

한 예측요인으로 소개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Hirschi(1969)는 사회유대이론(Social Bonding Theory)에서 가정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가정은 사회적 유대를 형성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이다. 하지만 부정적인 가정환경은 청소년들에게 사회적 유대를 약화시켜 청소년비행으로 나아가게 하기도 한다. 특히 부모의 자녀에 대한 애정, 관심, 의사소통, 감독, 훈육과 체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들은 청소년비행의 유혹에 쉽사리 빠져들게 될 수 있는 것이다(Hirschi, 1969). 그 외에도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 일반긴장이론(General Strain Theory), 자기통제이론(Self-Control Theory) 등 주요한 범죄학 이론들 역시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기존 연구자들은 청소년비행이 가정의 문제에 기인하는 대표적인 부작용이라 설명한다(Browning, 1960; Gove & Crutchfield, 1982; Hirschi, 1969; McCord, 1979; Nye, 1958; Patterson, 1980; Wells & Rankin, 1986, Wilson, 1980). 이들의 공통된 주장은 청소년의 사회화를 담당하고 보호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가정의 내외부적 특성들이 청소년들의 성격형성, 인지능력, 사회적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Gove & Crutchfield, 1982). 비행과 관련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는 가정환경적인 요인은 가정의 외형적 특성과 내부적 특성이 있다. 가정의 외형적 특성은 사회경제적 지위, 결혼가정, 빈곤, 가족의 규모 등을 의미하며 가정의 내부적 특성은 가정의 기능이라 불리며 가정의 분위기, 가족관계, 자녀양육, 훈육, 감독 등이 주요한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비행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부모의 양육행위는 “부모와 자녀와의 애착관계, 의사전달, 감독정도, 훈육과 체벌” 등으로 살펴볼 수 있다(Cernkovich & Giordano, 1987). 이제까지의 연구결과들은 가정의 내외부적 특성들이 자녀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며 이들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 및 매개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Browning, 1960; Demuth & Brown, 2004; Monahan, 1957; Nye, 1958; Wells & Rankin, 1988).

최근의 국내연구에서도 가정의 구조와 기능적 특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려는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다(기광도, 2003; 2009; 김영미, 2006; 김준호 외 1인, 1989; 1996; 유안진 외 2인, 2005; 이경은 외 1인, 2008; 정소희, 2006; 조아미 외 1인, 2009; 황혜정, 2003). 하지만 기존 연구들의 문제점

중 하나는 청소년 비행을 설명함에 있어서 특정적인 가정요인에 국한되어 설명되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결손가정이나 가족의 경제적 지위를 중심으로 한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여러 가족구조적인 특성들이 어떻게 부모의 양육행동이나 청소년비행에 영향을 미치는지 포괄적으로 살펴보기 어려웠다. 특히 가족의 기능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족의 규모와 출생순위와 같은 가정의 외부적인 요인들을 동시에 고려한 연구들이 많지 않았다. 또한 가족의 구조적인 특성으로 중요시되는 결손가정은 친부모와의 동거여부로 단순히 분류하는 연구들이 많아 다양한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적 특성을 파악하기 어려웠다(정소희, 2006; Demuth & Brown, 2004).

이에 이 연구에서는 가족의 구조적인 특성과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부모의 양육행동과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가족의 구조적인 특성이라 할 수 있는 가정의 구성형태(양친부모동거, 모자가정, 부자가정), 가족의 규모, 조부모와의 동거여부, 출생순위와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부모의 학력, 직업, 소득이 부모의 양육행위(애착, 감독, 훈육)와 청소년비행(지위비행, 중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려는 것이다. 또한 가정의 외형적 모습인 구조와 지위의 영향력이 부모의 양육행위를 통제하였을 때 그 영향력이 매개되는지도 살펴볼 것이다. 이 연구의 수행을 위해 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집한 청소년패널데이터(Korea Youth Panel Survey-제주도제외)에서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2학년의 5년 차 자료를 통합하여 사용하였다. 두 가지 패널자료를 통합하여 사용한 이유는 결손가정의 유형을 구분하기에는 그 수치가 너무 적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두 패널자료를 통합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II. 이론적 논의 및 기존연구 검토

가족의 구조적인 특성(Characteristics of Family Structure)은 대표적으로 가족의 결손과 가족의 규모 및 출생순위(자녀의 수, 대가족, 출생순위)를 들 수 있다. 가족의 구조적인 특성이 미시적인 가족의 외형적 형태를 의미한다면 가족의 사회경제적

특성은 거시적인 이론과 연구들에서 계층과 범죄의 관계를 다루는데 주로 사용되었다. 최근에는 미시적인 측면에서 가정의 계층을 사회경제적 지위(SES)로 측정하고 있으며 사회경제적지위의 구성요소는 부모의 학력, 직업, 그리고 소득이다.

청소년비행연구에서 많은 연구들이 관심을 가지는 대표적인 가정의 구조적인 특성은 가정의 결손여부이다. 일반적으로 결손가정이란 이혼, 별거, 사망, 재혼 등으로 친부모가 모두 없거나 어느 한쪽이 없는 가정을 의미한다. 초기 결손가정과 청소년 비행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은 결손가정이 직접적으로 비행을 초래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오랜 기간 사실로 받아들여졌다(Browning, 1960; Chilton & Markle, 1972; Monahan, 1957; Thomas et al., 1996). 또한 결손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 중에서 여성에 비해 남성이 보다 비행이나 범죄행위에 가담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해되었다(Datesman & Sca Rpitti, 1975; Gove & Crutchfield, 1982). 하지만 이후 연구들은 결손가정과 청소년비행의 관계가 불명확하다는 결론내리고 있다(Nye, 1958; Von Voorhis et al., 1988).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손가정이라는 가정환경이 비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은 많은 연구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결손가정과 비행의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종합한 연구로 Wells와 Rankin(1991)의 연구를 예로 들 수 있다. Wells와 Rankin(1991)은 1990년대에 발표된 50개의 논문을 메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정상가정에 비하여 결손가정의 자녀들이 비행에 가담할 가능성이 10-15%정도 높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하지만 결손가정의 자녀들의 비행은 일반적으로 지위비행에 국한되는 경향이 있으며 결손으로 인한 영향이 성별이나 나이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별거나 이혼으로 인한 결손이 사별에 의한 결손보다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여준다(Wells & Rankin, 1991). 또한 현재의 연구들은 결손가정의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결손가정이라는 구조적인 특성이 부모의 양육행위에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청소년비행을 야기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상호작용이나 매개모형이 제안하고 있다(Monahan, 1956; Nye, 1958; Hirschi, 1983; Von Voorhis et al., 1988). 즉, 결손가정의 자녀들은 정상가정(Intact Family)의 자녀들에 비하여 부모의 양육행위에서 경제적 시간적으로 불이익이 존재하며 이는 부모의 양육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후 비행행위와 연관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왜냐하면, 결손가정은 정상가정에 비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 자녀에 대한 지원이 부족할 수 있고 시간적인 제약으로 감독 및 의사소통의 부족이 예상되고 정상가정에 비하여 엄격한 처벌을 가할 가능성이 높으며 적절한 역할모형을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으며 주위의 낙인으로부터 고통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Monahan, 1957; Wells & Rankin, 1986). 따라서 결손이라는 가족의 구조적인 특성으로 야기된 여러 부작용들이 비행행위와 연관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청소년비행에서 중요시되고 있는 부모양육행태의 부정적인 변화는 자녀의 비행행위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결손가정과 비행의 관계에 대한 최근의 연구에서 주목받고 있는 또 다른 연구영역은 결손가정에서 보호자의 성별에 관한 것이다(Demuth & Brown, 2004; Monahan, 1959; Rosen, 1969;). 이혼, 별거, 직장 등 기타의 이유로 일상적인 삶을 아버지 혹은 어머니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자녀들은 결손가정에서의 일반적인 양육행태의 차이뿐만 아니라 비행행동에도 차별적인 영향이 존재할 것이라는 설명이다(Browning, 1960; Demuth & Brown, 2004; Monahna, 1957; 기광도, 2009; 정소희, 2006). 특히 편모가정의 자녀들은 다른 유형의 결손가정들에 비하여 보다 더 비행의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Monahan, 1959; Demuth & Brown, 2004; Rosen, 1969; 1985). Monahan(1959)은 편모가정의 흑인 자녀들이 백인 자녀들에 비하여 보다 더 많은 비행행위를 저지르고 있으며 성별에 있어서도 여자아이들에게 보다 더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고 재범비율에 있어서도 부모결손으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아진 가정의 자녀들이 많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Demuth와 Brown의 연구(2004)에 의하면, 친부모와 동거하는 아이들에 비하여 편부모 가정의 아이들은 보호자의 성별에 상관없이 비행행위를 보다 많이 저지른다고 하며 부모의 양육행태를 고려하는 경우 그 효과가 매개된다고 한다. 한편, 중비행에 있어서 부모의 양육행태를 통제하였을 때 편모와 함께 거주하는 아이들은 심각한 재산범죄를 많이 저지르며 폭력범죄에 있어서는 모든 편부모 가정의 아이들이 정상가정에 자녀들에 비하여 폭력범죄를 더 많이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나 결손가정의 직접적인 효과와 보호자의 성별에 따른 차별적 영향을 동시에 보여주었다.

국내 연구에서는 결손가정과 청소년비행에 관계를 검증한 연구들이 진행 되었다.

기광도(2009)는 편부가정(單父家)의 아이들이 정상가정(正常家)의 아이들에 비하여 지위비행과 심각한 비행(嚴重犯罪)을 더 많이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자아이들이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위비행에서 부모의 양육행위를 고려할 경우 결손가정의 영향력이 매개되는 것을 볼 수 있으나 심각한 비행에서는 결손가정의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아 결손가정은 지위비행과 보다 관련된다고 한다. 유안진과 그의 동료들의 연구(2005)에서도 결손가정이 청소년비행과 정적인 관련성이 존재함을 나타내는데 양친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아이들에 비하여 이혼이나 별거로 인해 편부가정의 아이들은 재산 및 폭력비행 뿐만 아니라 지위비행과 성비행(性犯罪)을 더 많이 저지른다고 한다. 조아미와 임영식(2009)의 연구에서도 결손가정이 지위비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상의 연구들은 결손가정의 유형을 편모가정과 편부가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손가정의 유형에 따른 영향의 차이를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이에 청소년패널데이터 초등학교 및 중학생 1년차 자료를 사용한 정소희(2006)의 연구에서는 편부가정에서 보호자의 성별을 보다 구체적으로 구분하였는데 지위비행, 재산범죄, 그리고 폭력범죄에서 편부가정의 자녀들이 보다 더 비행을 많이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편모가정에서는 정상가정과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 연구결과와는 달리 편부가정이 비행에 더 취약함을 보여주었다. 김영미의 연구(2006)는 청소년의 흡연행동에서 결손가정이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나 성별을 고려할 경우 모자가정의 남자아이들이 흡연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구조적 특성 중 또 다른 중요한 변인은 가족의 규모이다. 가족의 규모는 가족 구성원의 수나 자녀의 수를 의미하지만 핵가족과 대가족구조를 의미하기도 한다. 우선 가족제도의 관점에서 볼 때 전통적인 대가족제도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부모뿐만 아니라 조부모의 애정과 돌봄을 받고 전통적인 규범과 가치를 내면화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 기대되며 이는 청소년의 일탈행위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 가정될 수 있다. 또한 조부모의 존재는 가정에서의 화목과 의사소통의 기능을 증대시켜 부모의 양육행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기대된다. 하지만 현대사회의 가족제도는 대가족제도에서 핵가족사회로 변화하였고 이로 인하여 전통적인 대가족사회에서 조부모의 위치나 역할이 감소함으로써 조부모와의 동거 여부는 청

소년비행과 관련성이 없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되고 있다(김준호 외 1인, 1995).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가족에 비하여 확대가족에서 조부모는 손자녀의 정서적인 안정을 뒷받침하고 부모의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며 가족의 화목한 분위기를 증진시켜 손자녀에게 직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핵가족의 자녀들에 비하여 문제행동을 덜하도록 만든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한다(황혜정, 2003:32-34).

가족의 규모를 결정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자녀의 수이다. Slawson(1925)은 자녀의 수가 일정 수준이상인 가정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은 가정의 자녀들에 비하여 약 8%의 비행행위를 더 저지르고 자녀의 수와 체포율의 관계도 정적이라고 주장한다. 기존연구들에 의하면 자녀의 수가 많은 가정은 그렇지 않은 가정에 비하여 제한적 자원의 배분에 의한 갈등, 좁은 공간의 공유로 인한 자극성 증대, 부모양육과 관심의 분산 등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유발하게 되어 청소년비행을 보다 더 초래할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된다(Fisher, 1984; Nye, 1958). Fischer(1984)에 의하면 가족의 소득, 사회적 지위, 부모의 범인성, 그리고 가족의 구성과 같은 변수를 통제하였을지라도 가족의 규모와 청소년비행의 관계는 존재하며 이는 좁은 공간에 많은 가족이 거주함으로 인하여 가족기능의 저하하기 때문이라 결론내리고 있다. 즉 큰 가족의 규모는 전형적으로 적절한 역할모델과 자녀양육이 어렵고 물리적 공간 부족과 소득의 한계로 경쟁이 치열하며 가족 간의 사랑과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비행과 연관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Fischer, 1984).

가족의 규모와 함께 중요시되는 요인은 출생순위이다. 출생순위와 비행의 관계에 대한 초기 연구들은 출생순위가 빠를수록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보여주고 있다(Breckenridge & Abott, 1912; Goring, 1913; Shrader & Leventhal, 1968). Breckenridge와 Abott(1912)는 Cook County 소년법원에 회부된 584명의 남자아이들을 조사하였는데 맏이로 태어난 아이들이 문제아동일 가능성이 중간이나 막내아이들에 비하여 높았다고 하며 Goring(1913) 역시 영국에서 3,000명의 수감자들 중 맏이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Rahav, 1980: 385, 재인용). 이후 연구에서도 이를 지지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Fortes, 1933; Shrader & Leventhal, 1968). Fortes는 639명의 보호관찰소년들을 조사한 결과 맏이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Fortes, 1933). 이와 유사하게

Shrader와 Leventhal의 연구(1968)에서 맏이가 문제행동과 소년법원에 회부될 가능성이 가장 높으며 막내는 가장 낮은 문제행동을 보인다고 한다. 하지만 다른 많은 이후 연구들은 맏이 보다는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이 보다 더 비행에 많이 저지른다는 반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Nye, 1958; Rahav, 1980; Rosen, 1969). 즉, 중간이나 마지막에 태어난 아이들은 맏이나 독자인 아이들보다 문제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Nye, 1958). 특히 중간에 태어난 아이들이 다른 출생순위의 아이들에 비하여 비행행위에 가담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결과가 많이 발견 된다(Rahav, 1980; Rosen, 1969; Wilkinson et al., 1982).

이상에서와 같이 출생순서에 따라 비행행동의 빈도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생물학적으로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나 비슷한 가정환경을 경험하는 형제자매들 일지라도 그들 개개인이 사회화되고 부모로부터 통제받는 방식에는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일 것이다. 옛말에 ‘열손가락을 깨물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라는 말이 있지만 실제로 부모가 자녀들을 동일하게 양육하고 있지 않으며 자녀들은 매우 어린 시절부터 이 같은 차별적 대우를 인지할 수 있다고 한다(Brody et al, 1987; Bryant & Crockenberg, 1980; Kowal & Kramer, 1997; Monahan et al., 1993). 결과적으로 출생순위의 차이는 부모의 양육행위에 차이를 유발하게 되며 이는 자녀들 간의 관계에 영향을 주고 개개 자녀들의 심리발달, 성격형성, 행동방식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Brody et al., 1987). 또한 형제자매의 성별에 따라서 행동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데 두 명의 자녀들 둔 가정에서 같은 성(Gender)의 형이나 언니를 둔 둘째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들은 성별이 다른 형제자매를 둔 둘째들에 비하여 문제행동을 할 가능성이 가장 높았다. 이는 성역할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세 명의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성별과 상관없이 둘째가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가장 높았고 이는 첫째 아이들의 경우 부모의 관심을 받기 위해 돌출적인 행동을 할 필요가 없고 육체적으로나 사회적인 힘이 동생들에 비하여 강하고 동생으로부터 역할모델을 모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경쟁과 반항심이 강한 둘째에 비하여 문제행동의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설명이다(Wilkinson et al., 1982). 형제자매 간의 성별은 청소년들의 성적 태도(Sexual Orientation)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형을 두고 있는 남자아이들이 동성애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보여주며 학업성취와

대학입학에 있어서도 출생순위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Bayer, 1966; Bogaert, 2000). 한편으로 출생순위와 가족의 규모는 상호작용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중간에 태어난 아이들이 맏이나 막내에 비하여 비행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고 한다(Rahav, 1980).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청소년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이다. 전통적으로 계층과 범죄의 관계는 거시적인 범죄학 이론들(아노미/긴장이론, 사회해체이론, 하위문화이론)에서 많이 다루어졌다. 초기 연구들은 하위계층의 청소년들이 비행행위를 보다 더 많이 저지른다는 입장이었으나 여러 연구들의 결론은 공식적인 통계자료를 사용할 경우 그 관련성이 존재하나 자기보고식 자료에서는 관련성이 없거나 미약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아직까지도 두 변인간의 관계는 논쟁적이라는 것이다(Hindelang et al., 1981; Sampson, 1986; Thornberry & Farnsworth, 1982; Tittle et al., 1978; Tittle & Meier, 1990). 이에 이후 연구자들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수 있는 변인을 찾으려고 시도하였고 부모의 양육행위가 대표적인 매개변인으로 제안되었다(Brown, 1981; Hagan et al., 1985; 1987; Kohn, 1959; 1963; Larzelere & Patterson, 1990).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부모양육행위의 관계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연구는 Kohn(1959; 1963)을 들 수 있는데 부모의 교육수준, 직업, 그리고 소득에 따라 부모의 자녀양육방식을 결정하는 자녀양육가치(Parental Values)에 차이가 존재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그는 중산층 부모들의 직업과 하층 부모들의 직업에서 중요시되는 가치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중산층의 부모들은 추상적이고 정신적인 업무를 주로 다루고 자기주도적(Self-Direction)이며 자기결정적인 업무를 주로 하는 반면 하위계층 부모들의 직업은 물체를 다루는 등 직접적이고 표준화된 형태를 가지므로 집단의 역할에 의존하는 정형화된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녀양육방식에 차이가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다(Kohn, 1959; 1963). 특히 중산층의 부모들은 자녀의 내부적 변화(Internal Dynamics)에 관심을 가지는 경향이 있고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소득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다 여유롭게 자녀를 관찰하고 감독할

수 있는 동기(Motives)와 감정(Feeling)에 충실할 수 있지만 하위계층의 부모들은 중산층의 부모들에 비하여 교육적 배경이나 사회적 지위의 차이로 삶의 조건이 근본적으로 달라 자녀양육에 보수적이며 통제적인 성향을 나타낸다고 한다(Kohn, 1963:477).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자녀의 행동에 대한 반응에서 차이를 나타내는데 만약 자녀의 잘못된 행위를 목격하는 경우 하위계층의 부모들은 물리적 처벌을 보다 많이 사용하나 중산층의 부모들은 꾸짖음, 격리, 죄의식 호소, 그리고 애정의 손실을 위협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강구한다고 한다(Bronfenbrenner, 1958; Kohn, 1963 재인용). 또한 중산층 부모들은 자녀를 지지하는데 대하여 책임감을 많이 느끼며 보다 자녀의 내면적 변화에 관심을 가지는 반면 하위계층의 부모들은 외부적인 규칙에 순응할 것을 강조하고 자녀를 강제하는데 관심을 가진다. 마지막으로 중산층의 부모들은 부모의 역할에서 남녀의 구분이 명확하지 나타내지 않으나 하위계층의 가정에서는 모(Mother)는 자녀들에게 지원적이나 부(Father)는 규제적인 특성을 보인다고 한다(Kohn, 1963:478-479).

Brown의 연구(1984)에서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자녀양육방식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데 자녀에 대한 학대와 방임은 하위계층에서 보다 많이 발생한다고 한다. Alwin의 연구(1984)에서도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부모양육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그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부모의 자녀양육가치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부모의 자녀양육방식에 차이를 나타내며 중산층의 경우 자녀의 자율성(Autonomy)을 보다 강조하나 하위계층의 부모들은 복종(Obedience)을 보다 강조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주장한다(Alwin, 1984). Larzelere와 Patterson(1990)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부모양육기술(Parenting Skill)의 차이로 비행이 유발한다는 Patterson의 강제이론(Coercive Theory)을 검증하였는데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비행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미약하였고 부모양육방식의 차이를 유발하여 비행과 관련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국내에서도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청소년비행의 관계를 검증하려는 노력들이 존재하였다. 대표적으로 김준호와 노성호(1989)는 서울지역의 고등학교 학생, 직업훈련원생, 그리고 소년원생을 대상으로 사회계층과 청소년비행의 관계를 검증하였는데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청소년비행을 설명하는데 크게 기여를 하지 못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등학교 학생과 비행청소년을 비교했을 때, 비행청소년의 비행행위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력이 높게 나타나 공식적인 처벌을 받고 있는 아이들 중 하위계층의 아이들이 많이 분포함을 알 수 있으나 이 결과가 청소년비행과 사회경제적 지위의 관계를 단정 짓지는 않는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오히려 부의 수입과 학력은 청소년들의 피해자 없는 비행이나 지위비행을 보다 더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경제적 지위와 청소년비행의 관계는 보다 복잡하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김준호와 이성식의 연구(1996)에서는 부모의 교육과 결혼가정여부에 따라 부모유대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며 이는 청소년비행과 관련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을 가진 아버지들 둔 자녀들은 결혼가정의 경우 유대관계가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모유대의 비행억제효과는 대졸이상의 교육을 받은 가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가정의 구조적인 특성과 사회경제적 지위가 부모양육행위와 비행에 조건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이다. 한편, 기광도의 연구(2003)는 사회계층과 자녀양육 및 청소년 비행 간의 관계를 보다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부모의 학력, 부의 직업, 가구소득, 그리고 주관적 지위인식을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설명하는 변인으로 사용하여 자녀양육(애착, 감독, 처벌)과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나 비행에 직접적인 영향력은 존재하지 않았고 자녀양육에 일부 매개되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경은과 이주리의 연구(2008)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가정에서의 폭력사용이 증가되며 부모와 자녀의 관계 및 감독의 질이 약화된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국내외 연구들의 결과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비행의 관계는 직접적인 영향은 약하나 부모의 양육행위와 같은 가족의 기능적인 요인에 영향을 미쳐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정의 구조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지위는 청소년들의 삶의 질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양육행위를 결정하게 되며 그 결과로 인하여 청소년들의 일탈적 행위와 연관될 수 있기에 외형적으로 기존 연구에서 비행과 보다 더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난 가정의 기능적 요인만큼이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요인인 것이다. 국내 여러 연구에서도 가정의 구조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지위가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가정의 기능에 매개되는 간접효과

를 검증하고자 하는 시도가 존재하였으나 포괄적으로 가정의 구조적 특성을 다룬 연구는 미흡하였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에서 제안되고 있는 가정의 구조적 요인들을 모두 고려한 연구모델을 제시함으로써 가정의 구조적 특성과 기능적 특성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이 연구의 주요한 목적은 가정의 구조적인 특성과 사회경제적 지위가 부모의 양육행동과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이다. 기존 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할 때, 가정의 구조적인 특성과 사회경제적 지위는 직접적으로 청소년비행을 유발하기 보다는 부모의 양육행동에 차이를 발생시켜서 비행과 관련될 것이라 가정된다. 이 연구에서 연구 목적 수행을 위해 사용된 자료는 한국청소년개발원이 조사한 청소년패널데이터이다. 청소년패널데이터는 초등학교 4학년 패널과 중학교 2학년 패널을 대상으로 2003년에서 2008년까지 층화다단계집락표집방법으로 수집된 자료이다. 이 두 가지 청소년패널데이터는 조사에 참여한 조사대상자들의 가족구조에 대한 응답에서 편모가정과 편부가정의 케이스가 크지 않아 가족의 구조(특히, 결손가정의 구조)를 세분화하여 살펴보기 어렵기 때문에 두 가지 청소년패널데이터 합쳐서 사용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비행의 시기는 일반적으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시기에 가장 많은 발생빈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초등학교 4학년 패널이 중학교 1학년이 되고 중학교 2학년 패널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5년차 청소년패널데이터를 합쳐서 분석에 이용하고자 하였다. 청소년패널데이터 5년차 자료에서 부모와 청소년 모두 성공적으로 응답한 케이스는 초등학교 4학년 패널이 2844명이었고 중학교 2학년 패널은 3449명이었다. 부모와 청소년의 무응답 자료를 제외하고 실제 연구 분석에 사용한 전체 케이스는 5360명의 자료였다.

2. 주요변인들의 측정

1) 종속변수

(1) 청소년비행

청소년 비행은 지위비행, 중비행, 그리고 전체비행으로 측정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비행경험을 설문할 경우 거의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비행참여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많고 특정 응답자들은 매우 높은 수준의 청소년비행 빈도를 나타냄으로 회귀분석의 동분산성, 정규 분포성, 그리고 선형성 등과 같은 기본적인 가정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에 여러 연구들에서는 로짓모형이나 토빗모형 회귀분석을 강구하는데 이 연구에서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자료의 한계점을 일부 극복하고자 한다. 청소년패널데이터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2학년의 5년차 자료에서 청소년비행을 측정할 수 있는 공통된 변수는 총 7가지이며 이 중에서 지위비행을 나타내는 변수는 무단결석, 흡연, 음주, 가출이며 폭력 및 재산범죄는 협박, 폭행, 절도이다. 전체비행은 위의 7가지 비행의 경험을 통합한 결과이다. 변수설정의 방법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위해 비행경험의 존재유무로 측정하였다. 우선 지난 1년간 청소년비행의 경험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한 가지 이상 경험이 존재하는 경우는 1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0으로 코딩하였다. 즉 한 가지라도 비행행위의 경험이 존재하는 경우 비행청소년집단에 속하게 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일반청소년집단에 속하게 되는 것이다.

(2) 부모의 양육행동

부모의 양육행위는 부모가 얼마나 자녀와 정서적 동질성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지지하고 제대로 통제하고 훈육하고 있는가를 의미하는 개념이며 부모와 자녀 간의 애착관계,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 부모의 자녀에 대한 감독, 그리고 부모의 자녀에 대한 훈육과 체벌(학대여부)을 포괄하는 복합적인 개념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행위를 부모와 자녀의 유대관계(애착 및 의사소통), 부모의 감독정도, 그리고 부모의 학대로 측정하고자 한다. 부모의 애착은 애정과 의사소통을 통합

한 개념으로 여섯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즉, “부모님은 늘 사랑과 애정을 보이신다”와 “부모님과 나는 서로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등의 내용에 “1=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매우 그렇다”에 이르는 5점 척도에 응답토록 한 문항이다. 부모의 감독은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등과 같은 네 가지 문항을 사용하였고 “1=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에 응답한 값의 합을 사용하였다. 부모의 학대는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심하게 맞은 적이 많이 있다” 등과 같은 2문항을 사용하였고 “1=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에 응답한 값의 합을 사용하였다. <표 1>은 부모의 양육행위에 대한 요인분석의 결과표이다. 요인분석 결과 부모의 양육행위는 애착, 감독, 그리고 학대의 세 가지 요인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부모와의 애착과 감독은 청소년 비행에 부적관련성을 보일 것이나 학대는 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2) 독립변수

(1) 가족의 구조적인 특성

가족의 구조적인 특성을 이루는 변수로 결손가정, 자녀의 수, 조부모와의 동거여부, 그리고 출생순위를 사용하였다. 우선 결손가정은 양친부모가정을 기준 집단으로 하여 1)편모가정, 2)편부가정, 3)양친부모 없음, 4)친모와 양부가정, 5)친부와 양모가정으로 나누어 더미변수를 만들었다. 양친부모가 없는 가정, 친모와 양부가정 및 친부와 양모가정에 속하는 응답자의 수가 많지 않아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자녀의 수는 형제자매의 수에 1을 더하여 계산하였다. 조부모와의 동거여부는 할머니나 할아버지 중 어느 한쪽이라도 함께 거주하는 경우를 1로 하고 조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는 0점으로 나타내었다. 출생순위는 만이(독자포함)를 기준으로 하여 둘째 이후 출생과 막내로 구분하여 더미변수를 만들었다.

(2)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SES)는 가구소득, 동거부모의 교육수준, 동거부모의 직업을 5점 척도로 재구성하여 가중치를 두고 그 합을 사용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가구의 월 평균소득은 100만원 이하(1점), 101-200만원(2점), 201-300만원(3점), 301-400만원(4점), 401만원 이상(5점)으로 측정되었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같이 삶을 영위하고 있는 부모 중 가장 높은 학력을 사용하였고 일부 무응답에 대하여 평균값을 부과하였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중졸이하(1점), 고졸(2점), 전문대졸(3점), 대졸(4점), 그리고 대학원 이상(5점)으로 분류하였다. 부모의 직업은 동거하고 있는 부모의 직업 중 가장 상위직업에 기초하여 계산하였는데 무직(1점), 농업, 임업, 어업, 기능원, 장치, 기계조작 및 단순노무직(2점), 서비스직 및 판매직(3점), 준전문가 및 사무직(4점),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전문가(5점)로 측정하였고 부모가 군인인 경우 공무원이므로 4점을 부과하였고 무응답에 대하여 평균값을 제공하였다. 소득, 학력, 직업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아이겐 값은 1.710이었고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56.996%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변수들의 신뢰도 값은 .621였다.

〈표 1〉 부모양육행위에 대한 요인분석결과

요인	항목	계수		
부모애착	• 부모님과 나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냄	.680		
	• 부모님은 나에게 늘 사랑과 애정을 보임.	.672		
	• 부모님과 나는 서로를 잘 이해함	.746		
	• 부모님과 나는 무엇이든 허물없이 이야기함	.752		
	• 나는 내 생각이나 밖에서 있었던 일들을 부모님께 자주 이야기 함	.689		
	• 부모님과 나는 대화를 자주 나누는 편임.	.748		
	• Eigen Value= 5,737, Chronbach's Alpha = .895			
부모감독	•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 위치를 앎	.775		
	•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누구와 함께하는지 앎	.810		
	•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무엇을 하는지 앎.	.826		
	•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나의 귀가시간 앎	.657		
	• Eigen Value =1,696, Chronbach' s Alpha=.892			
부모 학대	•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심한 욕설을 자주 듣는 편임.			.872
	•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심하게 맞은 적이 많이 있음.			.830
	• Eigen Value =1,330, Chronbach' sAlpha=.855			

3) 통제변수

연구 분석에서 중요한 통제변수로 다루어진 변수들은 성별과 나이이다. 청소년 비행에 있어서 가족의 영향은 성별에 따라 차별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Giordano & Cernkovich, 1979; Nye, 1958; Von Voorhis et al., 1988). 나이 역시 청소년비행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 중 하나로 인식되는데 10대 초반에 비하여 10대 후반기에 청소년비행을 보다 더 저지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Gottfredson & Hirschi, 1990).

IV. 분석결과

1. 기술통계분석의 결과

이 연구에서 사용된 통계분석은 변수들의 특징을 나타낸 기술적 통계분석, 남녀 성별에 따른 주요변인들의 평균 차이를 분석하기 위한 변량분석과 카이제곱검증,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상관관계분석, 가족의 구조적인 특성과 사회경제적 지위가 부모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선형회귀분석, 그리고 청소년비행을 예측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이 사용되었다. 우선 기술적 통계분석의 결과는 <표2>에서 제시되었다. 응답자 중 52.1%가 남자 청소년이며 47.9%는 여성 청소년들이다. 응답자들의 평균 연령은 16.53세였고 평균적인 자녀의 수는 2.167명이었다. 응답자들 중 11.1%가 조부모와 동거하는 것으로 나타나 핵가족사회가 심화되어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가족의 구조를 나타내는 결손가정의 여부는 양친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학생들이 거의 절대다수였으며 편모가정의 자녀들은 4.5%였고 편부가정의 응답자들은 2.4%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출생순위는 독자나 맏이의 비율이 높은 편이었고 둘째 이후에 출생한 응답자는 8.6%인 반면 마지막에 출생한 청소년은 41.1%로 두 자녀 가정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표 2〉 주요변인들에 대한 기술적 통계분석 결과

변인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가정의 구조적 특성					
결손가정	양친부모동거(4916; 91.7%)				
	편모동거(241; 4.5%)				
	편부동거(128; 2.4%)				
자녀의 수		2,1671	,5773	1	6
조부모 동거여부	조부모 동거함(589; 11,1%)				
	조부모 동거하지 않음(4718; 89,3%)				
출생순위1	말이독자포함(2657; 50,3%)				
	첫째이후출생(457; 8,6%)				
	막내(2171; 41,1%)				
출생순위2	첫째(2657; 50,3%)				
	첫째이후(2628; 49,7%)				
사회경제적 지위		9,600	2,473	3	15
부모의 양육행위					
애착		21,09	4,68	6	30
감독		13,89	3,44	4	20
학대		3,221	,1,68	2	10
청소년비행					
지위비행경험	있음(1974; 37,4%)				
	없음(3311; 62,6%)				
중비행경험	있음(211; 4%)				
	없음(5074; 96%)				
전체 비행경험	있음(2043; 38,7%)				
	없음(3242; 61,3%)				
통제변인					
성별	남자(2753; 52,1%)				
	여자(2532; 47,9%)				
나이		16,53	2,487	13	20

부모의 양육행위에 대한 응답에서 부모와의 애착의 평균은 21.09점으로 애착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응답 청소년들이 부모에게 강한 애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편 부모의 감독 정도는 평균이 13.89로 부모의 자녀에 대한 통제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부모의 자녀들에 대한 육체적, 언어적 학대 정도는 매우 낮은 편으로 평균이 3.221이었다. 전반적으로 응답자들은 가정에서 부모와의 유대가 강하며 감독이 적절하게 이루어

지고 있으며 언어적 육체적인 체벌이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청소년비행에 관한 변수의 기술적 통계분석 결과를 살펴보자면, 응답 학생들이 흡연, 음주, 가출, 무단결석과 같은 지위비행을 경험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중비행에 속하는 폭력, 협박, 절도의 경험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응답 청소년들은 지난 1년간의 기간 동안 약 40%정도가 비행행위에 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부모양육행위와 비행의 차이

자녀의 성별에 따라 부모의 양육행위에 차이가 존재하는지와 성별에 따른 비행행위의 정도에서 차이가 존재하는 지를 살펴보기 위해 분산분석과 카이제곱검증을 실시하였다. <표3>에 나타났듯이 부모의 양육행위는 자녀의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여자아이들은 남자아이들에 비하여 부모에게 애정을 강하게 느끼며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감독을 보다 강하게 받는 반면 남자아이들은 여자아이들에 비하여 부모로부터 보다 엄격한 체벌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별에 따른 비행행위의 가담여부에서도 차이가 존재하는데 전체 비행행위에서 남자아이들은 여자아이들에 비하여 비행에 보다 더 가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평균값에 대비하여 표준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볼 때 성별내부의 차이도 상당히 존재함을 알 수 있다.

3. 가족 결손유형에 따른 부모양육행위와 비행의 차이

<표4>는 결손의 유형에 따른 부모양육행위와 비행행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부모의 양육행위에 있어서 편부가정이 문제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양친부모동거 및 편모가정에서는 양육행위의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즉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는 청소년들은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에 문제점을 가지며 애정이 약하고 감독을 덜 받으며 학대적인 체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행행위에 있어서는 양친부모와 동거하는 자녀들이 상대적으로 결손가정에 비하여 비행을 덜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편부가정과는 차이가 거의 나지 않았고 오히려

려 편모가정의 아이들이 지위비행을 보다 더 많이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 연구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편부가정의 자녀들은 상대적으로 편모가정의 자녀들에 비하여 중비행에 보다 더 가담하게 되며 지위비행에서는 수치가 낮았지만 부모양육행위의 부정적 영향력이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편모가정의 자녀들이 지위비행을 더 많이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부모양육행위의 긍정적인 영향으로 어느 정도 상충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표 3〉 성별에 따른 부모양육행위와 비행의 차이

변인	남자청소년		여자청소년		DF	F-ratio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부모애착	20,596	4,477	21,643	4,836	(1, 5283)	66,832***
부모감독	13,366	3,070	14,478	3,417	(1, 5283)	140,916***
부모학대	3,342	1,772	3,070	1,566	(1, 5283)	34,645***
카이제곱검증						
지위비행	,397	,4894	,3476	,4762		13,997***
중비행	,047	,2121	,0320	,3176		7,982***
전체비행	,414	,4926	,3566	,4791		18,363***

p<.10, * p<.05, **<.01, *** p<.001

〈표 4〉 결손가정의 유형에 따른 부모양육행위와 비행의 차이

변인	양친부동거		편부동거		편모동거		분산분석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부모애착	21,150	4,681	19,390	4,902	20,929	4,399	9,010***
부모감독	13,941	3,442	13,093	3,268	13,468	3,556	5,744***
부모학대	3,195	1,678	3,632	1,877	3,323	1,639	4,766***
카이제곱검증							
지위비행	,3664	,4818	,4297	,4969	,4896	,5009	16,688***
중비행	,0389	,1932	,0703	,2566	,0456	,2091	3,437ns
전체비행	,3796	,4853	,4453	,4989	,4979	,5014	15,479***

p<.10, * p<.05, **<.01, *** p<.001

4. 조부모와의 동거여부와 부모양육행위 및 비행의 차이

조부모와 동거하는 청소년들은 긍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것이라 가정되었으나 <표5>의 결과는 가설과 반대의 방향이거나 영향이 없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우선 부모양육행위에 있어서 조부모의 존재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되었으나 오히려 조부모와 동거하는 가정의 아이들은 부모와의 애착이 약하고 의사소통이 덜하며 부모로부터 감독을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조부모가 존재함으로써 부모의 양육의무가 줄어들 수 있기에 이 같은 결과가 초래되었을 수도 있겠으나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대가족제도는 부모양육행위에 긍정적이지 않은 결과이다. 한편, 청소년비행에 있어서 조부모와의 동거는 지위비행에 관련성이 없었으나 중비행에 있어서 10%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중비행을 일부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영향은 전체 비행에 있어서도 약하게 의미를 가지는데, 10%유의수준에서 조부모와의 동거는 비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조부모 동거여부에 따른 부모양육행위와 비행의 차이

변인	조부모 동거(X)		조부모동거(0)		DF	F-ratio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부모애착	21.158	4.672	20.616	4.730	(1, 5283)	7.032***
부모감독	13.964	3.445	13.373	3.419	(1, 5283)	15.443***
부모학대	3.201	1.681	3.298	1.689	(1, 5283)	1.753ns
Chi-square test						
지위비행	.3705	.4830	.3973	.4897		1.601
중비행	.0415	.1995	.0272	.1627		2.816#
전체비행	.3831	.4861	.4143	.4931		2.144#

p<.10, * p<.05, **<.01, *** p<.001

5. 출생순위에 따른 부모양육행위와 비행의 차이

출생순위에 따른 부모양육행위와 비행경험의 차이를 살펴보았는데 비행행위에서는 출생순위에 따른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 부모양육행위에서 일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부모와의 애착에서 중간에 출생한 자녀들(3자녀 이상 가정)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 독자나 맏이에게는 애착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감독수준에서도 중간에 출생한 자녀와 막내(2자녀 가정 및 그 이상)의 경우에는 감독의 수준이 낮았으나 독자나 맏이에게는 강한 감독의 수준을 보여주었다. 부모양육행위에서 부모학대변인만이 출생순위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출생순위에 따른 비행경험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출생순위는 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으나 부모양육행위의 차이를 유발하여 비행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표 6〉 출생순위에 따른 부모양육행위와 비행의 차이

변인	맏이 및 독자		막내출생		중간출생		분산분석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부모애착	21,302	4,715	20,924	4,589	20,735	4,868	5,410***
부모감독	14,111	3,476	13,714	3,358	13,536	3,619	10,730***
부모학대	3,203	1,668	3,221	1,706	3,212	1,682	,072***
카이제곱검증							
지위비행	,3696	,4827	,3772	,4848	,3786	,4855	,354ns
중비행	,0380	,1912	,0447	,2066	,0284	,1664	3,105ns
전체비행	,3816	,4858	,3915	,4820	,3917	,4886	,548ns

p<.10, * p<.05, **<.01, *** p<.001

7. SES, 자녀의 수, 부모양육행위, 그리고 비행의 관계

〈표7〉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자녀의 수, 부모양육행위, 그리고 비행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이다. 기존 연구들에서 주장되었듯이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부모양육행위와 비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애착과 감독이 강하며 자녀학대와 같은 체벌적 행위를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행에 있어서 중비행을 제외하고 지위비행과 전체비행에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부적관련성을 나타내었다. 한편, 가족의 규모를 나타내는 자녀의 수는 부모양육행위와 비행 모두에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나 기존연구결과에서 가정되었던 경제적 어려움, 시간의 부족, 좁은 공간에서의 경쟁을 유발할 것으로 생각되는 가족의 규모와 부모양육행위 및 비행의 관계는 지지받지 못하였다. 또한 나이와 지위비행의 관계는 기존 연구결과에서처럼 정적관련성을 나타내었고 그 관계가 매우 강하게 나타났다. 즉 10대 후반의 청소년들은 10대 초반의 청소년들에 비하여 비행행위에 가담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연령과 비행의 관계곡선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하지만 중비행에 있어서는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보여주는데 나이가 어릴수록 중비행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결과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부모양육행위와 비행의 관계는 여러 범죄학이론에서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비행억제요인인 부모의 애착과 감독은 지위비행, 중비행, 그리고 전체비행에 일관되게 부적관련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비행유발요인인 부모의 학대는 청소년비행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 관계의 강도는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V1	V2	V3	V4	V5	V6	V7	V8	V9
부모애착(V1)	1								
부모감독(V2)	.590**	1							
부모학대(V3)	-.262**	-.162**	1						
지위비행(V4)	-.100**	-.136**	.058**	1					
중비행(V5)	-.074**	-.080**	.059**	.126**	1				
전체비행(V6)	-.112*	-.147*	.063**	.973**	.257**	1			
SES(V7)	.090**	.102**	-.048**	-.086**	-.009	-.081**	1		
자녀의수(V8)	-.024	-.018	-.012	.008	-.005	.009	-.052**	1	
나이(V9)	.001	-.031*	-.003	.409**	-.070**	.381**	-.076**	.024	1

p<.10, * p<.05, **<.01, *** p<.001

8. 가정의 구조적인 특성과 사회경제적 지위가 부모양육행위에 미치는 영향

가정의 구조적인 특성과 사회경제적 지위를 동시에 고려하였을 경우 어떤 요인이 부모양육행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며 얼마나 부모양육행위를 설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8>는 부모양육행위에 가정의 구조적인 특성과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력을 검증한 회귀분석결과이다. 분석결과 가정의 구조적인 특성과 사회경제적 지위는 기대하였던 것과 달리 부모양육행위에 대한 설명력이 매우 낮았다. 이 모델은 부모의 애착을 1.3%, 부모의 감독을 1.7%, 그리고 부모학대를 단지 0.4%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매우 낮은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모든 모델에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가장 강한 영향력을 나타내었으며 일관되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보여주었다. 한편, 가정의 구조적 유형에서 편부가정인 편모가정에 비하여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부모와의 동거는 부모감독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순위에서 있어서 막내로 출생한 경우 맏이에 비하여 부모와의 애착이 낮았으며 감독의 수준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간출생 자녀들(3자녀 이상의 가정)은 맏이에 비하여 부모의 감독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가정의 구조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지위는 부모양육행위에 일정부분 영향력을 미치기는 하지만 매우 미약한 설명력을 나타냄으로써 비행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 역시 크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 8〉 가정의 구조적인 특성과 사회경제적 지위가 양육행위에 미치는 영향

	부모애착		부모감독		부모학대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상수		20.003***		12.779***		3.569***
편모가정	.174	.315	-.129	.231	.051	.114
편부가정	-1.334**	.426	-.411	.313	.345**	.154
자녀의 수	-.076	.132	.066	.097	-.052	.048
조부모와의 동거	-.360	.206	-.487***	.151	.059	.074
막내출생	-.355***	.136	-.391***	.100	.024	.049
중간출생	-.413	.280	-.591***	.206	.063	.101
사회경제적 지위	.157***	.027	.131***	.020	-.029***	.010
R-square		.013***		.017***		.004***

p<.10, * p<.05, **<.01, *** p<.001

9. 가정의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이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

<표9>는 청소년비행에 가정의 구조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지위가 미치는 영향과 부모양육행위에 의해 매개되는 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로지스틱회귀분석의 결과이다. 청소년비행의 모든 유형에서 통제변인으로 사용된 연령과 성별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한편, 청소년비행에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었던 부모양육행위를 분석모델에서 고려하였으나 미약하게 설명력이 높아질 뿐 변화가 크지 않아 기존 연구들(Cernkovich & Giordano, 1987; Gove & Crutchfield, 1982; Hirschi, 1969)의 결과와는 미약한 영향력을 보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부모양육행위 중에서 부모에 대한 애착은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이해되었으나 기존 연구결과(Gove & Crutchfield, 1982)와는 달리 설명력이 가장 낮았으며 부모감독과 부모학대가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의 감독은 자녀의 비행행위 전반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억제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기존 연구결과의 내용을 지지하는 결과이다(Wilson, 1980; Wells & Rankin, 1988) 자녀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를 의미하는 감독이 애정과 의사소통과 같은 심리적 요인에 비해 강하게 작용하여 비행기회를 차단하고 관리하는 것이 청소년비행을 방지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임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한편, 부모의 자녀에 대한 심리적 육체적 체벌은 자녀의 비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훈육과 체벌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결손가정과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는 편모가정의 자녀들이 지위비행과 전체비행을 양친가정의 자녀들에 비하여 거의 40%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비행에 대한 설명력은 존재하지 않았다. 한편, 편부가정은 모든 비행행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 결과는 기존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주장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부재가 청소년들의 비행행위를 증가시킨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부모양육행위를 고려한 경우에도 그 영향력은 매우 미약하게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나 매개효과가 크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가족의 규모를 나타내는 자녀의 수는 모든 비행행위에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조부모와의 동거는 지위비행과 전체비행을 감소시키지는 않지만 중비

행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조부모와 동거하는 청소년들에게 상대적으로 중한 비행행위에 대한 억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이 사실은 조부모와의 동거가 전통적인 가치와 법규범을 내면화 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더 제공할 것이라는 주장을 일부 뒷받침하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출생순위에 따른 비행 경험의 여부는 기존 연구들의 결과에 기초할 때 중간이나 막내로 태어난 아이들이 보다 더 비행을 많이 저지를 것으로 가정되었으나 모든 분석모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여 출생순위와 비행의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외부적 요인 중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되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중비행을 제외하고 일관되게 청소년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의 양육행위를 고려한 경우에도 그 영향이 매우 미약하게 약화되었으나 지속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즉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들은 지위비행과 전체비행에 가담할 가능성이 감소되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를 종합할 때, 가족의 구조적인 특성과 사회경제적 지위는 청소년비행에 그리 크지 않은 관련성을 보여주었으며 기존 연구 결과들과 마찬가지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편모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지위비행과 전체 비행을 보다 더 많이 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중비행에 대한 설명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의 구조적인 특성과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력을 매개할 것으로 기대하였던 부모양육행위는 일부 매개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나 크지 않았으며 부모양육행위 자체의 직접적인 효과 역시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한국청소년들의 비행을 설명함에 있어서 부모양육행위와 가족의 외부적인 요인 이외에 다른 숨겨진 요인들을 찾아낼 필요가 있어 보인다.

〈표 9〉 청소년비행에 가정의 구조적인 특성,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양육행위가 미치는 영향

	지위비행		중비행		전체비행	
	모델 1 Exp(B)	모델 2 Exp(B)	모델 1 Exp(B)	모델 2 Exp(B)	모델1 Exp(B)	모델2 Exp(B)
여자	.745***	.828***	.687*	.778#	.727***	.812***
나이	1.472***	1.479***	.865***	.862***	1.418***	1.426***
편모가정	1.408*	1.399*	1.197	1.179	1.385*	1.377*
편부가정	1.507#	1.422#	1.965#	1.805	1.476#	1.386
자녀의 수	.959	.959	1.082	1.088	.975	.975
조부모와의 동거	1.071	1.035	.580*	.556*	1.090	1.053
막내출생	.916	.822	1.408	1.551	.789#	.841
중간출생	.957	.961	1.504	1.610	.924	.972
사회경제적 지위	.957**	.968**	.976	.991	.960***	.972*
부모애착		.983*		.991#		.979*
부모감독		.936***		.924***		.934***
부모학대		1.047**		1.106***		1.049**
카이제곱	996.1***	1083.9***	42,871***	85,710***	863,452***	968,186***
-2 Log Likelihood	5988.43	5900.62	1729.756	1686.916	6188.715	6083.981
Cox & Snell	.172	.185	.008	.016	.151	.167

p<.10, * p<.05, **<.01, *** p<.001

IV. 결 론

가족의 구조적인 특성과 사회경제적 지위가 부모양육행위와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이 연구는 기존 연구 결과들을 일부 지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방향성에 있어서는 의미가 존재하지만 영향력이나 관계의 크기에 있어서는 미흡한 부분이 존재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비록 청소년비행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정요인들이 이론적 논의나 기존 연구들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는 있지만 청소년비행에 대한 설명력이 높지 않았다. 연구결과를 간략하게

종합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의 구조적인 특성 중 일관되게 나타난 결과는 결손가정이 청소년의 지위비행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이다. 특히 편모 가정은 양친가정에 비하여 부모양육행위에는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아 편모가정의 자녀들이 감독의 부재와 보다 엄격한 훈육을 받기 때문에 비행이 유발될 것이라는 기존 논의를 반박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편모모가정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양부모가정에 비하여 낮을 것이라는 기존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결과를 보여 직접적으로 편모가정이 애착, 감독, 그리고 학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으나 사회경제적 지위의 낮음으로 인해 상호작용의 가능성은 존재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편부가정은 비행과 매우 미약한 관련을 나타내었으나 부모양육행위를 통제할 경우 그 효과는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편부가정의 아버지들은 자녀들에 대한 애정, 감독, 그리고 학대가 양부모가정에 비하여 부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구조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라도 부적절한 부모양육행위로 인해 청소년비행과 관련성이 존재할 것으로 이해된다.

결손가정과 비행의 관계에 대한 이 연구의 결과는 또 다른 중요한 논의를 제공한다. 2006년 정소희의 연구는 청소년패널데이터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생 2학년 2년 차 자료를 사용하였는데 그 연구에서는 편부가정의 자녀들이 비행을 보다 더 많이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간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같은 자료를 사용한 이 연구에서는 편모가정에서 비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 연구 결과의 차이가 의미하는 것은 아마도 연령이 낮은 시기에 가정의 결손은 편부가정에서 보다 더 부정적인 상황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 반면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은 청소년들에게 있어서는 편모가정이 부정적인 결과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 이해될 수 있다. 물론 결손가정의 시기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의 한계가 존재하고 이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 정확하게 결손가정의 시기 문제인지 아니면 연령과 결손가정의 관계에 관한 문제인지 명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으나 연령에 따른 결손가정의 영향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의 결과 중 중요한 논의를 제공하는 또 다른 결과는 조부모와의 동거여부이다. 기존 연구들에 기초할 때 조부모와의 동거는 부모양육행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질 것이라 기대되었으나 오히려 조부모와의 동거는 부모애착과 감독을 감소시

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다른 구조적인 특성들을 고려했을 때 부모감독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현대 핵가족 사회에서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것은 빈번하지 않으며 따라서 조부모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지만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감독정도가 감소하는 것은 가정 내에서 조부모가 존재함으로써 자녀를 양육하는 책임을 일부 담당할 것이며 이는 당해 부모들의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이나 시간을 덜어줄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하지만 조부모의 양육참여 혹은 감독참여가 청소년 부모의 기대와는 달리 표면적인 것일 수 있으며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수 있기에 조부모동거에 기인한 부모감독의 감소는 청소년 자녀들의 문제행동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가족의 구조적인 특성 중 자녀들의 출생순위는 직접적으로 청소년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맏아들·맏딸에 비하여 막내와 중간출생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사랑과 감독을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나 장기적으로 문제점을 유발할 것으로 이해된다. 비록 현대 가정에서 자녀의 수는 2명 정도이며 출산율의 감소로 독자녀를 키우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어 부모의 자녀에 대한 관심이 과거에 비하여 높을 것이라 기대되어 출생순위나 자녀의 수가 유발할 수 있는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 할 수는 없지만 부모 양육행위의 차이로 인해 형제자매 간의 관계에 문제점이 유발될 가능성도 존재하며 부모의 차별적 대우가 향후 자녀들의 성격형성이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자녀양육에 있어서의 고른 관심과 애정이 필요할 것이다.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부모양육행동과 비행행위에 가장 일관된 관련성을 나타내는 변인이었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가정의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따뜻한 애정과 관심, 적절한 훈육과 감독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하위계층의 자녀들은 부정적인 부모양육행동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의 지위비행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우리 사회가 모든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상승시킬 수는 없으나 빈곤, 저학력, 실업을 개선시킬 수 있는 사회적 노력이 요구되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부모들에게 올바른 자녀 교육방법에 대한 교육과 육체적 체벌의 부작용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통제변인으로 사용된 성별에 따른 부모양육행위의 차이점도 발견되는데 여자 청

소년들이 비행행위를 남자 청소년들에 비하여 덜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는 결과이다. 왜냐하면, 청소년비행을 예측한 로지스틱 회귀모형에서 부모양육행위를 통제하였을 때 성별의 영향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성별효과가 부모양육행위에 의해 매개됨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우리나라 가정에서는 남자아이들에 대하여 부모들이 애정을 덜 나타내며 감독이 약하고 언어적 육체적 체벌을 여자아이들에 비하여 심하게 하고 있는데 이러한 성별에 따른 부모양육행동의 차이는 비행과 관련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녀 성별에 국한되지 않는 자녀양육방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연구의 의의는 가정의 외형적 환경을 나타내는 구조적인 특성과 사회경제적 지위를 동시에 고려하는 분석모형을 구축함으로써 통합적으로 가정의 외형적 환경과 청소년비행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가정의 외형적 특성이 기능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관계는 기대하였던 것에 비하여 약하였지만 그 관계는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청소년비행의 대책을 강구하는데 있어서 의미 있는 결과이다. 그러나 연구의의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가 가지는 문제점 역시 존재한다. 우선 이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동일연령의 집단이 아니라 혼재해 있는 집단의 자료를 사용하였기에 집단 간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며 부모에 의해 기입된 가정의 특성에 대한 응답에서 무응답이 많아 많은 자료가 손실되었고 일부 자료에 대한 평균값의 대치는 통계적 분석을 부정확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자료수의 부족으로 가족의 결손유형을 보다 다양하게 분류하여 분석에 이용하지 못함으로써 제공 가능한 결과에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가족구조적인 특성들 간의 상호작용효과를 이 연구에서는 파악하지 않아 가족구조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요인들 간의 숨겨진 메커니즘을 파악하는데 한계점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에 이후 연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연구방법과 자료의 수집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기광도(2003). 사회계층과 자녀양육 및 비행 간의 관계분석, 형사정책연구 12(3):139-176.
- (2009). 결손가정과 청소년 비행 간의 관계분석, 형사정책연구 20(1):41-70.
- 김영미(2006). 청소년 음주와 흡연에 대한 가족구조와 사회 통제적 요인의 관계, 청소년학 연구, 13(6):151-178.
- 김준호·김순형(1995). 가정환경과 청소년비행,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준호·노성호(1989). 사회계층과 청소년비행의 관계에 대한 경험적 연구, 형사정책, 4(4):197-237.
- 김준호·이성식(1996). 계층에 따른 학업성적과 비행과의 관계-긴장이론과 사회통제이론의 통합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7(4):97-120.
- 유안진·이점숙·서주현(2005). 가족 구조에 따른 청소년 비행, 대한가정학회지, 43(10):91-102.
- 이정은·이주리(2008).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관계에서 부모 양육행동과 가정폭력의 매개역할, 놀이치료연구, 12(2):1-15.
- 조아미·임영식(2009). 가족구조 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과 지위비행의 차이, 미래청소년학회지, 6(1):137-154.
- 정소희(2006). 가족구조, 부모양육행동 및 청소년비행-모자가정과 부자가정의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30(1):185-213.
- 황혜정(2003). 가족구조에 따른 아동의 문제행동과 조부모의 역할에 대한 인식비교, 대한가정학회지, 41(12):27-38.

국외문헌

- Alwin, F.D. (1984). Trends in parental socialization values: Detroit, 1958-1983,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0(2):359-382.
- Bayer, E.A. (1966). Birth order and college attendance, Journal of Marriage and

- Family, 28(4):480-484.
- Bogaert, F.A. (2000). Birth order and sexual orientation in a national probability sample, *The Journal of Sex Research*, 37(4):361-368.
- Breckinridge, S.P & Abott, E.(1912). *The delinquent child and the home*, New York: Russel Sage.
- Brody, G.H., Stoneman, Z., & McCoy, J.K.(1987). Child Temperaments, maternal differential behavior, and sibling relationships, *Developmental Psychology*, 23: 354-362.
- Brown, E.S. (1981). Social class, child maltreatment, and delinquent behavior, *Criminology*, 22(2):259-278.
- Browning, J.C.(1960). Differential impact of family disorganization on male adolescents, *Social Problems*, 8(1):37-44.
- Bryant, B. & Crockenberg, S. (1980). Correlates and dimensions of pro-social behavior: A study of female siblings and their mothers, *Child Development*, 51: 529-544.
- Cernkovich, S.A. & Giordano, P.C. (1987). Family relationships and delinquency, *Criminology*, 25:295-319.
- Chilton, J.R. & Markle, E.G. (1972). Family disruption, delinquency conduct and the effects of subclassific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7:93-99.
- Datesman, K.S.& Sca Rpitti, R.F.(1975). Female delinquency and broken homes: a re-assessment, *Criminology*, 13(1):33-56.
- Demuth, S. & Brown, L.S. (2004). Family structure, family processes, and adolescent delinquency: the significance of parental absence versus parental gender,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41(1):598-81.
- Fischer, D.G.(1984). Family size and delinquency, *Perception and Motor Skills*, 58(2):527-534.
- Fortes, M. (1933). The influence of position in sib-ship on juvenile delinquency, *Economica*, 41: 301-328.

- Goring, C.B. (1913). *The english convict: a statistical study*, London: Woman and Sons.
- Gove, W. & Crutchfield, R.D.(1982). The family and juvenile delinquency, *Sociological Quarterly*, 23:301-319.
- Hagan, J., Gillis, A.R., Simpson, J. (1985). The class structure of gender and delinquency: Toward a power-control theory of common delinquent behavior,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0(6):1151-1178.
- Hagan, J., Simpson, J., & Gillis, A.R. (1987). Class in the household: a power-control theory of gender and delinquenc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2(4):788-816.
- Hindelang, M., Hirschi, T., & Weis, J.(1979). Correlates of delinquency: the illusion of discrepancy between self-report and official measur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4:995-1014.
- Hirschi, T (1969). *Causes of delinquency*, (Transaction Publishers 2005 4th ed.)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Kohn, L.M. (1959). Social class and parental valu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64(4): 337-351.
- .(1963). Social class and parent-child relationship,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68(4):471-480.
- Kowal A. & Kramer, L. (1997). Children's understanding of parental differential treatment, *Child Development*, 68(1):113-126.
- Larzelere, E.R. & Patterson, R.G.(1984). Parental management: mediator of the effect of socioeconomic status on early delinquency, *Criminology*, 28(2):301-324.
- McCord, J.(1979). Some child-rearing antecedents of criminal behavior in adult me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4:1477-1486.
- Monahan, S.T.(1957). Family status and the delinquent child: a reappraisal and some new findings, *Social Forces*, 35:250-258.

- Monahan C.S., Buchanan, M.C., Maccoby, E.E., & Dornbusch, M.S. (1993). Sibling differences in divorced families, *Child Development*, 64(1):152-168.
- Nye, F.I.(1958). *Family relationships and delinquent behavior*, New York(NY): John Wiley and Sons.
- Patterson, G.R.(1980). Children who steal. In Hirschi and Gottfredson, *Understanding Crime: Current theory and research*, Beverly Hills(CA): Sage.
- Rahav, G.(1980). Birth order and delinquency,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20(4):385-395.
- Rosen, L.(1969). Matriarchy and lower class Negro male delinquency, *Social Problems*, 17(2):175-189.
- Sampson, J.R. (1986). Effects of socioeconomic context on official reaction to juvenile delinquenc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1:876-885.
- Shrader, K.W & Levetthal, T. (1968). Birth order of children and parental report of problems, *Child Development*, 39(4):1165-1175.
- Slawson, J. (1925). Size of family and male juvenile delinquency, *American Institution of Criminal Law and Criminology*, 15:631-640.
- Thomas, G., Farrell, P.M., & Barnes, M.G. (1996). The effects of single-mother families and nonresident fathers on delinquency and substance abuse in black and white adolescent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8(4):884-894.
- .(1985). Family and delinquency: structure or function?, *Criminology*, 23(3):553-573.
- Thornberry, T & Farnsworth, M. (1982). Social correlates of criminal involvement: Further evid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tatus and criminal behavior,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7:505-517.
- Tittle, C.R. & Meier, R.F. (1990). Specifying the ses/delinquency relationship, *Criminology*, 28(2):271-299.
- Tittle, C.R., Villemez, W.J. & Smith, D.A.(1978). The myth of social class and

- criminality: an empirical assessment of the empirical evidenc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3(5):643-656.
- Von Voorhis, V.P., Cullen, T.F, Mathers A.R. & Garner, C.C.(1988). The impact of family structure and quality on delinquency: a comparative assessment of structural and functional factors, *Criminology*, 26(2):235-261.
- Wells, L.E. & Rankin, J.H.(1986). The broken homes model of delinquency: analytic issues,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23:68-93.
- .(1988). Direct parental controls and delinquency, *Criminology*, 26(2):263-285.
- .(1991). Families and delinquency: a meta-analysis of the impact of broken homes, *Social Problems*, 38(1):71-93.
- Wilson, H.(1980). Parental supervision: a neglected aspect of delinquency,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20(3):203-235.
- Wilkinson, K., Stitt, B.G., & Erickson, L.M. (1982). Siblings and delinquent behavior, *Criminology*, 20(2):223-239.

The Effect of Structural Characteristics and Socioeconomic Status of Family on Parenting and Juvenile Delinquency

Yun, Woo-Su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ake a comprehensive examination about the effects of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family and socioeconomic status(SES) on parenting behavior and delinquency. Specifically, this study aims to test a direct effect of external characteristics of family on juvenile delinquency and a mediating effect of parenting behaviors. To accomplish the goals, the data used in this study were the 5th year version of Korean Youth Panel Data, merged with the fourth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data and the second grade middle school students' data. The results reveal diverse effects of structural characteristics and SES on parenting behaviors. Especially, children from single-father families are more likely to experience disadvantages in parenting manners of their father than single-mother families while juveniles from single-mother families are more likely to show problematic behaviors rather than those from single-father families. SES of the family becomes an important factor to determine the manners of parenting and the commission of delinquency so that children from low SES families are more likely to commit delinquent behaviors and to experience improper parenting. Juveniles' birth order slightly shows a weak effect on parenting and no effect on delinquency. Residency with grandparents unfortunately decreases the level of supervision, but also decreases serious delinquent behaviors. Lastly, depending on gender differential parenting practices exists which may effect on juvenile delinquency.

* Full-time Instructor, Department of Police Administration in Keimyung University

❖ Key words :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Family, Socioeconomic Status,
Juvenile Delinquency, Parenting, Birth Order